

Let us Share in Christ's Suffering!

그의 고난에 참여하라

Last week, I mentioned that my friend's boss was going bankrupt because the boss's employees were shrewdly taking advantage of the boss's niceness.

지난 주, 제 친구가 회사 사장이 파산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이 좋은 사람인 것을 직원들이 약삭빠르게 이용한 탓에 그런 겁니다.

And during the last month of his business, before he was about to close his business --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그가 폐업하기 전 한 달 동안

the employees began spreading vile rumors about him and his business.

사장과 회사에 대해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 boss found out about these rumors,

사장은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걸 알고 나서

he couldn't take it any more – he had a mental breakdown.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He cried out,

“Are my employees -- with their words -- trying to kill me?”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내 직원들이 이렇게 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These employees were actually clueless to the murderous effects their words had on their boss.

사실상 직원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사장을 죽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We don't need a gun or a knife to murder,

we can murder even with our words.

총이나 칼만 살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 몇 마디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One day after I delivered my sermon to you last week,

a famous **Korean actress and K-pop star** was found dead at her home.

지난 주 제가 설교한 다음날

유명한 **한국인 배우이자 케이-팝 스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She was only 25.

그 여배우는 25 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What provoked her suicide was the many negative hate comments on social media posted by internet haters and trolls and much of the comments was misinformation.

그녀를 자살로 내몬 것은 SNS 에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악플(악성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그 댓글 중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Her last media appearance was on a TV show, "The Night of Hate Comments."

그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TV 프로그램은 '악플의 밤'이었습니다.

The program invites celebrities who have suffered from cyber-bullying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을 겪은 유명인들이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for such a young person – throughout her teenage years and into her twenties?

그 젊은 사람이 10 대, 20 대 시절 내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It must have killed her everyday to read those hateful words on the internet, words that could never be erased.

절대 삭제되지 않는 인터넷상 악플을 읽는 것으로 인해, 그녀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As one fan tweeted, "Sulli's death shouldn't be reported as a suicide but murder. [She]was attacked constantly. There's only so much a person can take."

한 팬이 트위터에 트윗을 남겼습니다. "설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보도되어야 한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공격 받았다. 그런 공격에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다."

I'm sure none of these internet haters and trolls had ever held a gun or stabbed anyone with a knife.

저는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총을 들었거나 칼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I'm sure none of them would ever consider themselves murderers.

이들 중 스스로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However, with just their words – with just their fingers or their thumbs – they kill.

하지만, 그들은 말로, 그저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Because words kill.

왜냐면 말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God knows this – He knows everything – He knows how the victims feel.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십니다.

And he knows our potential to hate, potential to hurt others and yes even our potential to kill others.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You see, **God's Standard of the Ten Commandments**, is higher than our. That is why, according to his standard, we are all murderers.

자, **십계명에 제시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보다 높습니다. - 이 때문에 그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The 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Everyone who hates ... is a murderer, ...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1 John 3:14-15)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 서 3:14-15)

Have you ever hated anyone? According to God's standard, you are a murderer.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Have you ever hurt someone with sharp words of hatred?

누군가에게 미움으로 가득찬 날카로운 말로 상처 준 적이 있나요?

Ask your victims how they felt when you spewed bitter, venomous words on them.

그 말을 들은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쓰디쓴 악독한 말을 퍼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I'm sure your victims felt like they were dying inside.

그들은 속에서 죽어가는 느낌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Or perhaps like Sulli's haters, you typed in something bad about your victim on social media for everyone to see, **never to be erased.**

또는 설리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한 나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모두가 보게 하고 **절대 삭제되지 않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Have you ever considered how much you hurt that person?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Their reputation ruined because of your words.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의 평판은 망가졌습니다.

Or maybe you spoke behind your victims' back?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의 뒤에서 험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Maybe you spread rumors?

어쩌면 여러분은 소문을 퍼뜨렸나요?

**The tongue is a small thing, but what enormous damage it can do . . .—
James 3:5**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 야고보서
3:5**

There is a story of a woman who came to her wise old pastor with a troubled conscience.

양심에 가책을 받은 한 여성이 나이 많은 지혜로운 목사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She was a habitual gossip and she had badmouthed nearly everyone in her village.

그녀는 습관처럼 험담하고 다녔고, 거의 모든 마을 사람에게 대해 나쁜 말을 했습니다.

“How can I make amends for my gossiping? How can I compensate for all the hateful words I have said?” she pleaded.

“제가 험담한 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악담한 것을 모두 어떤 식으로 배상할 수 있나요?” 그녀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The pastor said,

“If you want to make peace with your conscience, take a bag of feathers and drop one at the door of each person you have slandered.”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벗고 평안을 얻고 싶으면, 봉투에 깃털을 담아 험담했던 사람들 집에 하나씩 떨어뜨리고 오세요.”

When she had done so, she came back to the pastor and asked, “Is that all?”

그녀는 그대로 하고 돌아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No,” said the minister, “now go back and gather up every feather and bring them all back to me.”

“아뇨,” 그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가서 깃털을 다시 하나씩 주워서 전부 가져오세요.”

The woman, however, returned without a single feather. She said regretfully, 하지만 그녀는 깃털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애석해 하며 말했습니다.

“I’m afraid the wind has blown them all away,”

“깃털들이 바람에 죄다 날아간 것 같아요.”

“You see,” said the pastor, “so it is with gossip. Hostile words are easily dropped and these words hurt others, but we can never take the words or the pain back again.”

목사님이 말했어요. “자, 험담은 그런 거예요. 나쁜 말은 특 내뱉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는 그 말이나 고통을 절대 주워담지 못합니다.”

You se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our words are quite extensive.

자, 우리가 한 말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는 상당히 큼니다.

The ripple effects eventually causes pain to our targets, great pain that we the perpetrator cannot even see.

물결 효과로 인해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를 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But God sees everything so He knows – from the perspective of our victims – our words are like sharp knives that stab deeply into their hearts.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아십니다. - 상처 입은 사람의 관점에서 - 우리가 한 말이 그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걸 아십니다.

God knows all this because He is everywhere and all-knowing.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므로 이 모든 걸 아십니다.

But we are usually ignorant of the pain we have inflicted on our victims.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So often in our self-righteousness, in our arrogance, we hypocritically criticize, blame, and rebuke others;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 의와 오만에 빠져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while, at the same time, we assume that we are good and righteous and blameless;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선하고 의롭고 흠 없다고 생각합니다;

and just like the Pharisees in Jesus' time, we too are often blinded of our sinfulness.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도 종종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Jesus says of the Pharisees,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oe to you, blind guides. ... Woe to you ...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 have neglected the weightier matters of ... mercy and faithfulness. These you ought to have done.... So you outwardly appear righteous to others, but within you are full of hypocrisy and lawlessness I send you prophets ... some of whom you will kill and crucify, and some you will persecute ... so that on you may come all the righteous blood shed on earth.... Matt. 23:16-35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운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땅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16-35

Now among the most zealous of Pharisees in New Testament times was probably Saul, aka Paul.

신약 시대 바리새인 중 가장 열심이 있는 자로는 사울, 곧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He zealously imprisoned and beat Christians.

그는 열심에 차서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며 박해했습니다.

When Stephen, a deacon of the first church and the first martyr was killed by the Pharisees, Paul says of the killing of Stephen,

첫 순교자가 된 초대 교회 집사 스테반이 바리새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in complete agreement when your witness Stephen was killed. I stood by and kept the coats they took off when they stoned him. Acts 22: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도행전 22:20

He was in complete agreement with his death because he thought Stephen was a bad guy.

그는 스테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완전히 찬성했습니다.

So Saul thought he was the good guy by assisting in the stoning of the bad guy.

그래서 사울은 나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도왔던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But years later, as he was ready to kill more Christians -- on the road to Damascus, he was confronted by the risen and glorified Jesus.

하지만 몇 년 후,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마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Saul]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Acts 9:3,4

...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사도행전 9:3,4

Saul's heart was pierced as he realized he was wrong – and he finally understood that he was the real bad guy.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자 사울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나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His hatred and violence against the church was actually hatred and persecution of the innocent Jesus Christ.

교회에 대해 그가 가졌던 증오와 폭력은 사실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와 박해였습니다.

In last week's sermon analogy, I used the 2003 Psychological Thriller Identity to show you a scene of another heart that was pierced.

저는 지난 주 설교 중 비유를 들어 2003년에 나온 심리 스릴러 영화 '아이덴티티'로 마음에 찔림 받은 또 다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character Protagonist, Former Policeman Edward Dakota?

여러분은 '프로타고니스트(주인공)' 캐릭터인 전직 경찰관 에드워드 다코타를 기억하십니까?

He thinks he is the protagonist, the good cop that must rescue everyone from the bad guy.

그는 자신이 주인공, 즉 나쁜 자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선한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in actuality he is the serial killer Serial Killer Malcolm Rivers, a Psychotic Patient with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하지만 실제 그는 연쇄살인마인 '시리얼 킬러 말콤 리버스'로 다중인격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Edward Dakota only realizes this when a criminal psychologist reveals his true identity as he gives Edward a mirror.

에드워드 다코타는 범죄심리학자가 에드워드에게 거울을 주면서 그의 진정한 정체성(아이덴티티)을 드러냈을 때에야 이를 깨닫습니다.

Edward looks into the mirror.

에드워드는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He is shocked and horrified.

그는 충격 받고 공포에 빠집니다.

He realizes he is not the good guy, but the actual murderer.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살인자임을 깨닫습니다.

The truth hits him like a ton of bricks.

이 진실은 수 톤의 벽돌더미처럼 그를 강타합니다.

And Edward is pierced to the heart.

그리고 에드워드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I'm reminded of another cop who thought he was good but later became a serial killer.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연쇄살인마가 된 또 다른 경찰관이 떠올랐습니다.

This is the true story of

Former Los Angeles police officer Christopher Dorner who brought terror to southern California.

이것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직 LA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르너**의 실화입니다.

He wanted to get revenge on his **ex-colleagues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for losing his job so he unleashed his rage and bitterness by murdering several police officers **and even their family members.**

그는 실직한 후 LA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예전 동료들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경찰관 몇 명을 살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살해하며 자신의 분노와 비통함을 쏟아냈습니다.

Criminal psychologist, Craig Jackson says that Christopher Dorner's attitude, behavior and action stems from his narcissism.

범죄심리학자 크레이그 잭슨은 크리스토퍼 도르너의 태도, 행태와 행동은 그의 자아도취증(나르시시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If you take away anything a narcissist loves -- their pleasures, their pride, their power -- then to the narcissist, you become the bad guy, the villain.

만일 여러분이 자아도취자가 좋아하는 것 - 쾌락, 자부심, 권력 등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나쁜 사람, 악한이 됩니다.

The narcissist – who is self-seeking – who is all about himself – is blinded by his lust, idolatry, and hatred and they feel they are justified to do anything –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아도취자는 스스로의 욕정, 우상,

증오에 눈이 멀어져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including lying, cheating, and even killing – to get revenge on anyone who the narcissist deems as a threat to the idols of his heart.

거짓말, 속임수, 심지어 살인을 해도 자신의 마음 속 우상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In our world today, it's easy to be a narcissist.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아도취자가 되기 쉽습니다.

It's easy to be self-absorbed.

자기 생각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And like a narcissist, it's easy to hate anyone who would take away our pleasure, desires, our freedom to live the way we want to live.

자아도취자처럼, 우리의 쾌락, 욕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Heidelberg Catechism says we have a natural tendency to hate God and our neighbor.

그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Heidelberg Catechism)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Bible says the same thing,

성경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For the mind that is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 God**, for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indeed, it cannot.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Rom. 8:7-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7-9

We know that many non-Christians today openly say bad things about God, the church, and Christians.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as the Bible says, the flesh – the carnal man -- is hostile to God and does not want to submit to God's law.

이는 성경이 말하듯이 육신 - 육적인 사람 -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prophesied about this 2000 years ago and we see this today.

성경은 2 천 년 전에 이를 예언하였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언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All around us, more and more people today hate God, they hate Christianity, they hate the church, they deny the Bible and deny the existence of God.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Anything to do with God – they say bad things.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y speak negatively about anything associated with God and it stems from their narcissism and their hostility to God.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들의** 자아도취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에서 옵니다.

In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2 Tim. 3:1-4**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1-4**

But we Christians must not hate.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We must not be lovers of ourselves, lovers of money, or pleasure but we must love God and love our neighbors – even our enemies as ourselves.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며 돈, 쾌락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 원수를 내 몸 같이 사랑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ark 12:31)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31)

In fact, Jesus says love your enemies.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No other religious founder – not Buddha, not Mohammad, not Confucian taught and lived this out – only Jesus went as far as saying, love your enemies as yourself.

어떤 종교 창시자도, 석가모니, 모하메드, 공자도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서만 네 원수를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t only did he command us to love our enemies, he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by even dying for his enemies on a cross.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원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And we Christians should also love our enemies as ourselves because, as I said last week, we as sinners were once haters of God.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를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죄인으로서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We were His enemies and we put him on the cross, but Jesus loved us and died for us, while we were yet sinners.

우리는 그의 원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And he saved us from our sins, he took the penalty we deserved to suffer by dying on the cross, and He has risen so that we can have life. Praise God!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는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Romans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10)

Unfortunately, many of us Christians have forgotten the guilt that was on our bloody hands,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피 묻은 손에 있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we have forgotten what Jesus has don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while we were yet his enemie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we have forgotten the sufferings He suffered for us, we have forgotten that
our very sins put Jesus on the cross to suffer and die the worst death penalty
known to man.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의 고난을,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을 당해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We fail to understand the Gospel and we forget God's Promise of the life-to-
come in His Kingdom, where there will be no more pain, crying or death.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고통, 눈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And because we forget, we daily complain and grumble to God and we fail to
love our neighbors and we seek revenge on our enemies and we fail to be
grateful to the God who has given us all things, including His Son.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며 우리에게
그의 아들까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Beloved, considering all that He has given us, we should not complain about
our suffering; instead we should share in Jesus' suffering and continue to do
good, even when life is difficult and even when we are mistreated.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
불평해선 안됩니다. 대신 삶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할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속 선을 행해야 합니다.

1 Peter 4:12-16,19

Beloved,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ordeal that has come on you to test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¹³ But rejoice as
you shar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¹⁴ If you a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¹⁵ If you suffer, it
should not be as a murderer or thief or any other kind of criminal, or even as a
meddler.¹⁶ However,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do not be ashamed, but
praise God that you bear that name. ...¹⁹ So then,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and continue
to do good.

베드로전서 4: 12-16,19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¹³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¹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¹⁵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¹⁶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¹⁹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As Jesus suffered, the early church suffered – they suffered far more than all of us do today. Yet, they rejoiced in shar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듯이 초대 교회도 고난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Even when they were insulted, when they were mistreated, they still did good to others – they had learned to love their enemies as themselves.
그들은 치욕 당했을 때, 학대 당했을 때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 그들은 원수를 제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And we know this to be true – history – because of historians like Tacitus on the Early Church Persecutions
그리고 우리는 초대 교회의 박해를 기록한 역사가 타키투스 때문에 이것이 진실, 곧 역사라는 것을 압니다.

Nero fastened the guilt and inflicted the most exquisite tortures on a class hated for their abominations, called Christians (Tacitus)

네로는 가증스럽다는 이유로 미움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계층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극심한 방법들로 고문했다.(타키투스)

"...a vast multitude, were convicted, And in their deaths they were made the subjects of sport; for they were wrapped in the hides of wild beasts and torn to pieces by dogs, or nailed to crosses, or set on fire, and when day declined, were burned to serve for nocturnal lights."

"... 수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면서 오락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들짐승의 가죽에 싸여 내던져졌고 개똥에 의해 온몸이 찢겨나가거나 십자가에 못박히거나 화형을 당했는데, 날이 저물 때 그들은 불에 타면서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불빛으로 사용되었다."

They were persecuted and willing to go to their death.
그들은 박해 받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

In fact the Emperor Nero, when he had important guests and parties at nighttime, he would pour burning oil and use them as candle lights for his parties.

사실상 네로 황제는 밤에 중요한 손님이 있거나 파티를 열 때 끓는 기름을 그들에게 붓고 파티장의 촛불처럼 사용했다.

Let us also look at another 1st century Roman historian: **Pliny on the Persecutions of the Early Church**

또 다른 1 세기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기록한 초대 교회의 박해를** 살펴봅시다.

Pliny states, "I have observed the following procedure: I interrogated these as to whether they were Christians; those who confessed I interrogated a second and a third time, threatening them with punishment; those who persisted I ordered executed..."

"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그들을 심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 자들에게 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두 번, 세 번 더 심문했습니다; 그래도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처형을 명하였습니다"

"For the matter seemed to me to warrant consulting you, especially because of the number involved. For many persons of every age, every rank, and also of both sexes are and will be endangered..." - 플리니우스

"저로서는 당신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관련된 사람 수가 문제입니다.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 남녀를 무론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앞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You see, Pliny is saying that all Christians no matter who they were, what race, whether male or female, old or young, they were willing to go to their death for their belief in Jesu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자, 플리니우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든 인종이나 남녀를 떠나 나이가 많은 어린 예수님의 생명,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Early Church was willing to suffer because they witnessed Christ's suffering and death and His resurrection.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 Peter was martyred around 66 AD
- 90 % of apostles died painful deaths
- Paul was decapitated around the same time (circa 66 AD)
- James (brother of Jesus) was stoned to death around 62 AD in Jerusalem
- And we know about the persecution of the early church.

베드로는 서기 66 년에 처형 당했습니다.

- 사도들의 90%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 바울은 이와 비슷한 시기 (서기 66 년)에 참수 당했습니다.
-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서기 62 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 초대 교회의 박해

These acts of the Apostles are all testimony of the veracity of Jesus'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and it is all in our history – this is not disputed by the top non-Christian historians today and top non-Christian historians back in the 1st and 2nd century.

사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는 모두 우리 역사에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최고의 비그리스도인 역사가와 과거 1 세기와 2 세기 때의 최고의 비그리스도인 역사가들 모두 논쟁하지 않습니다.

They -- Tacitus and Pliny and many others-- wrote about them.

그들은 이런 사실을 기록했고, 타키투스와 플리니우스와 다른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했습니다.

These were most accurate historians of their time period.

이 사람들은 당대 가장 정확한 역사가들이었습니다.

Another martyr mentione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s Stephen.

사도행전이 언급하는 또 다른 순교자는 스테반입니다.

Remember Deacon Stephen was the first Christian martyr and as he was being unfairly tried, persecuted, and murdered for being a Christian by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 including Saul.

스테반 집사는 첫번째 그리스도인 순교자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에게 의해 부당하게 재판 받고 처형 당해 죽임 당할 때

These Jews thought they were the good guys killing the supposed bad guy, Stephen.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쁜 자를 죽이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in spite of his unfair trial, his undeserved persecution and horrendous death, what did Stephen say before he would be stoned to death?

하지만 부당한 재판 억울한 처형, 끔찍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 무슨 말을 했나요?

Acts 7: 59,60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사도행전 7: 59,60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You see Stephen was not interested in vengeance but forgiveness – even of his enemies who would take his life.

자, 스테반은 복수가 아닌 용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관심 있었습니다.

Stephen's words echo that of another person who had died earlier to him.

스테반의 말은 그보다 먼저 죽었던 어떤 사람의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Do you know who that person is?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Yes, that person is Jesus.

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On the cross,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As both Jew and Gentile tortured and beat Jesus and nailed him to a cross to suffer and die, what did Jesus say about his enemies?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 속에 죽어가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원수들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4

Brothers and Sisters,
when Jesus says "forgive them" Jesus is talking about us. We are the ones who need forgiveness.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We are the ones who put him on the cross.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You see, Saul realized that he was the bad guy and persecuted Jesus.
이제, 사울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n the same way, let us realize that we are the bad guy and that we murdered Jesus.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함께 깨달읍시다.

I urge you to repent and come to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믿음으로 나아오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Praise God, He is not like us, like us who desire to get revenge on our enemies.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지 않고 원수에게 복수하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Praise God, for He is merciful and loving, desiring forgiveness.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시며 용서해주시를 원하는 분입니다.

Before I finish my sermon, I want to leave you with one verse.
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전하고 싶습니다.

Those who have been ransomed by the LORD will return. They will enter Jerusalem singing, crowned with everlasting joy. Sorrow and mourning will disappear, and they will be filled with joy and gladness.
Isaiah 35:10

여호와와 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10

Beloved, let us look forward to that day when we enter the Heavenly Jerusalem, the true Zion, when we enter with thanksgiving in our heart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참된 시온에 들어가는 날,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들어가게 될 그 날을 바라봅시다.

On that day, when we are together in heaven where there is no pain or suffering but just perfect, eternal joy and when we receive our new, perfect bodies, trust me --
그날,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없고 완벽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롭고 완전한 몸을 받게 될 때는, 진정으로 --

all our complaints, bitterness, and mistreatments and persecution we suffered in this life we will realize are just trivial and insignificant. The pain and hurt we suffer today will be forgotten as we enjoy God in His Kingdom in glory forevermore.

우리의 모든 불평, 비통함, 이 삶에서 우리가 겪는 학대와 박해는 코딱지처럼 작고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처는 잊혀질 겁니다.